

공격보류한 트럼프 “이란이 핵무기 금지 합의 하면 만족”

“매우 긍정적 진전” 강조하며
“이번엔 상황 달라” 공격 경고
아프리카 에볼라 확산 “우려”
자기 이름 딴 ‘트럼프RX’ 홍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뤄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 행사에서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공격 보류를 요청한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2-3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느냐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내 생각에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미국과 협력해 온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이 사실을 알렸으면서 “이는 매우 긍정적 진전이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과거에도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안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리는 이미 매우 큰 조처를

취할 예정이며,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둘 수는 없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란에 더욱 큰 규모의 폭격이 감행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란에 미국의 ‘핵무기 금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이란과의 합의 타결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군사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군사공격 재개 보류를 미군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선 “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우려한다”며 “현재로서는 아프리카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선 “사원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며 상황이 끔찍하다”며 “몇몇 초기 보고를 받았지만 돌아가서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의약품 판매 웹사이트 ‘트럼프RX’를 통해 더욱 많은 복제약을 값싸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RX를 통해 구매 가능한 의약품 수를 거의 7배로 늘리고,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600여종의 저렴한 제너릭 의약품(복제약)을 웹사이트에 추가한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프랑스 관객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열린 ‘신라, 황금과 신성’ 전시의 VIP 개막식에서 신라 시대 흙인형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관부터 왕오천축국전까지...파리서 공개된 천년 신라 유물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신라, 황금과 신성’ 전시

천년 왕국 신라의 황금 유물들과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보물들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관람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은 이날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신라, 황금과 신성’ 전시의 VIP 개막식을 개최했다. 신라 유물들이 유럽에서 대거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에는 신라 건국 신화부터 황금기인 통일 신라 시대를 아울러 신라의 찬란했던 문화와 당시 신라인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작품들이 대거 출동했다.

금관총 금관과 금제 관식,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제여래입상과 금제여래좌상, 석탑의 면석(面石), 흙으로 빚은 인형 등

모두 333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승려인 혜초(704-787)가 쓴 여행기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도 이번 전시에 공개됐다.

8세기 초에 쓰인 왕오천축국전은 한국인이 작성한 최초의 해외 여행기로, 이 시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치·문화·경제·풍습 등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기록 유산이다. 1908년 프랑스의 탐험가가 중국에서 구입한 문서 속에 포함돼 프랑스로 건너갔다.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2010-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아니크 린츠 기메동양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놀라운 보물들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고대 신라 왕국의 역사를 발견할 기회”라며 “신라 왕국을 통해 고대 문명과 놀라운 유산을 기념하는 자리”라고 의미 부여했다.

전시 작품들은 국립경주박물관과 리움미술

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등의 소장품으로 구성됐다.

윤상덕 경주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유럽에서 최초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파리 하늘 아래 울려 퍼질 신라의 숨결이 양국의 우호를 더 돈독히 하고 전세계인이 한국 문화의 깊은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공사는 “오늘날 한국은 케이팝(K-POP)과 영화, 드라마, 혹은 케이뷰티(K-BEAUTY)와 연관돼 종종 언급되는데, 이런 현대적 활기 뒤에는 오래되고 깊으며 세련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프랑스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한국 현대 문화를 넘어 한국 문명의 깊고 보편적인 역사적 뿌리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0일 일만에 공개돼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대만 지릉시서 한타바이러스 발생...크루즈 감염과 무관

대만 북부 지릉시에서 대서양 크루즈선 집단 감염과 무관한 한타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40대 청소부가 지난달 7일 청소 작업 도중 쥐에게 물려 당일 병원에서 소독 등 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2일 발열, 오한,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해당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한 한타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해당 청소부의 주소지인 린커우 지역을 관할하는 신베이 보건국은 전날 위생복지부 질병관제서(CDC)로부터 해당 환자의 한타바이러스 확진 통보를 받았다.

밀접 접촉자 11명에 대한 한타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앞서 지릉시 정부는 전날 저녁 관할내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의심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으며 담당 부서가 대응에 나섰다

대만에서 처음 한타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01년 1월로, 부부가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다.

질병관제서 통계에 따르면 2018-2025년 발생 건수는 모두 43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1월 수도 타이베이시 70대가 바 이러스에 감염돼 발병 8일 만에 사망하고, 3월 수도권 신베이시 또 다른 70대가 감염돼 치료받고 퇴원하는 등 총 3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짐승에 발길질하듯”...런던서 ‘너 유대인이지’ 집단구타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유럽에 확산한다는 우려 속에 영국 런던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국 내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런던 북

부 골더스그린 거리에서 이스라엘 국적의 A(2)씨가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해 얼굴과 목 등을 다쳤다.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거부한 A씨는 “그들은(가해자들은) 내게 ‘너 유대인이지’라고 외

치며 마치 짐승에게 발길질하듯 나를 건어냈다”고 BBC에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에도 런던 골더스그린 거리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유대인 남성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